

Robert C. Newman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4, 저자 및 날짜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어떻게 지내세요? 난 괜찮아. 좋은 오후예요. 우리는 여기서 공관복음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예수, 유대적 배경, 동방 박사의 방문 샘플을 포함한 주석 및 서사 소개. 이제 우리는 공관복음서의 저자와 날짜인 4절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관복음의 특징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서기 70년 이전에 공관복음서의 전통적인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공관복음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역시 전통적이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는 불확실합니다.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이 그 다음이지만 50년대 후반에는 누가복음을 선호하고 마태복음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직후인 60년대 초반에는 마가복음을 선호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는 공관복음의 저자부터 시작하여 그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증거와 외부 증거를 먼저 살펴본 후, 다시 돌아와 날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의 저자는 마태의 저자입니다. 제목을 제외하고 내부 증거는 그런데 우리는 제목에 나열된 다른 사람이 포함된 마태복음의 사본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익명입니다.

즉, 작가는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암시하는 경우를 결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사인에 제목을 붙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제목은 모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입니다. 파피루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며, 초기 양피지에서는 그 중 일부가 복음이 이해되는 위치에 따라 단축되었습니다. 글쎄요, 매튜가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아직 내부 증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사도 목록인 마태복음 10:2-4에서 그는 자신을 세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정확히 신약 팔레스타인에서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아마도 역사상 어느 때나 납세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정복된 지역이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맹렬하게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당시 로마의 징수 방식은 부패가 심하고,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세리들을 반역자나 사기꾼으로 몰았으며, 그리고 다양한 다른 종류의 것들. 마태, 누가, 사도행전의 사도 목록에는 사도 목록에서 마태가 세금 징수원이라는 세부 사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의 겸손을 시사할 수도 있고 모든 복음서가 익명으로 기록된 이유, 즉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이유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내부 증거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일관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모든 복음서의 제목에는 이러한 특별한 이름이 있고 전통적인 이름이 있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즉, 외부 증거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상당한 외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가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진술을 한 최초의 작가는 Papias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마도 서기 130년경에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인 *The Exposition of the Oracles, the Lord*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신탁을 썼으나 모든 사람이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신탁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talogia* 이며 ,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오히려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소 강한 용어 입니다 . 히브리어

방언에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방언이라는 단어를 방언 에서 얻은 단어입니다 .

따라서 그 의미의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확실히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파피아스의 신탁 박람회(Exposition of the Oracles, Lord)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발췌문은 여러 고대 작가와 심지어 중세 작가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전체 작품은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용한 내용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325년경에 기록된 책 3권 39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복음이었나? 두 문서 이론을 고수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공관 문제에 대한 나중에 논의할 때 신탁이 단서의 원천이었다고 종종 말하며 복음주의자들도 종종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피아스는 나중에 마가를 언급하기 위해 신탁을 사용했고,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Irenaeus는 그 기원에 관해 동일한 전통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마태복음임을 명시적으로 식별합니다. 히브리어 방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가리킬 수 있는데, 둘 다 고대에는 히브리어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원본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고 나중에 번역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상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히브리어 스타일로 쓰여진 그리스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파피아스의 논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체의 차이가 마태복음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청중에게 외국어라는 생각은 파피아스의 발언과 더 일치합니다.

최근 조지아 대학교의 조지 하워드(George Howard)는 히브리어 마태복음 원본의 다소 잘 보존되지 않은 본문이 Evan Bohan이라는 중세 유대인의 논쟁적인 반기독교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금석.

1987년 머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조지 하워드 (George Howard)의 작품인 원시 히브리어 본문에 따른 마태복음을 참조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듣는 다음 작가는 Irenaeus입니다. 그는 파피아스 이후 약 50년 후인 서기 180년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에 반대하는 저서에서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 마태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서를 출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 반대 (Against Heresies) 3권 1장 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은 이단 반대 (Against Heresies) 전체인 라틴어로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기저기서 인용되고, 이레나이우스 (Irenaeus)의 그리스어는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인용됩니다. 역사 (History) 5권 8절 2장. 이레나이우스 (Irenaeus)가 마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날짜를 알려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서기 60년대 초에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마도 그 기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한 세 번째 증인은 이레나이우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서기 180년경에 쓴 판타에 누스 (Pantaenus)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유세비우스에게 간접적으로만 그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Eusebius는 Church History, Book 5, Chapter 10, Section 3에서 Pantaenus도 그들 중 하나였으며 인도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도착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따라 복음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중 하나인 바돌로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가 히브리어로 마태의 글을 남겼다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 기록도 표시된 때까지 보존되었느니라. 판타에누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클레멘트와 오리겐보다 앞서 그곳의 교리학교 교장을 맡았다.

이는 간접적인 정보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Pantaenus 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아람어이거나 히브리어일 수 있지만 그리스어일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글은 2세기 후반까지도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인도와 로마 세계 사이에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언급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네 번째 증언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그는 약 20년 후인 서기 200년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판타에누스 이후 교리교육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 교리교육 학교는 이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정확히 동등한 용어는 없습니다. 교리교육 학교는 마치 교회의 주일학교 수업처럼 들립니다.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그랬지만 신학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종자부터 상당히 진보한 개종자까지 기독교인을 위한 모든 범위의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는 판타에누스(Pantaenus) 이후 이 교리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 그는 203년 박해 동안 알렉산드리아를 떠났고 그 후 서기 210년에서 217년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Clement의 인용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Eusebius가 인용한 것입니다 . 다시, 같은 책에서 그는 클레멘스의 개요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서의 순서에 관한 초기 장로들의 전통을 제시합니다.

그는 족보를 담고 있는 복음서들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복음서가 이 경우에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도착합니까? 글쎄요,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의 시대보다 앞선 지도자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판타에 누스 정도, 또는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마태와 누가가 먼저 기록되었으므로 마가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때 여기서 제안하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관한 다섯 번째 증인은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는 클레멘트와 아주 약간 겹치지만 아마도 서기 240년경에 여기에 글을 쓰고 있으므로 한 세대 이후입니다. 오리겐은 이집트에서 클레멘스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관리들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후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 큰 도서관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것이 고대 기독교 도서관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유세비우스에게 물려받았고, 그리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관한 그의 많은 자료. 오리겐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리겐을 인용하는 유세비우스이므로 그는 제3자입니다.

마태복음에 관한 첫 번째 책에서 교회 정경을 준수하는 오리게네스는 자신이 아는 복음서가 네 권밖에 없다고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하늘 아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일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복음서에 관하여 전통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한때 세리였던 마태의 복음이 기록되었으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유대교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로마순 서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마가, 누가, 요한 등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 오리겐의 진술을 더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리겐은 여기서 연대순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책은 교회 정경을 인용하고 준수한 첫 번째 책이다 . 그러면 이 글은 연대순으로 먼저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정경 순서로 먼저 쓰여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번역된 언어는 내가 말했듯이 그로미슨(Gromison)이라는 문자이며,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다소 더 명확합니다. 글썬요, 원한다면 그것은 초기 작가 5명입니다. 다음 두 증인은 신뢰할 수 있는 구전 전통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지 않은 서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미 오리겐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고대 교회의 주요 역사가이고, 제롬은 최고의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증언은 가이사랴의 유세비오가 32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역이 끝난 지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의 주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해안은 끝났지만 이것은 로마 박해가 끝난 후이므로 이곳은 오랫동안 유대인의 영토가 아니었지만 그는 오리겐의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 3권 24장 5장과 6장, 24장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직 마태와 요한만이 우리에게 회고록을 남겼으며 그들이 보고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성의 압력 하에서만 글쓰기에 의존했습니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에게 설교했던 마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려고 할 때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모국어로 기록하도록 맡겼고, 자신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상실한 것에 대한 기록으로 보상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평 중 하나는 회고록이라는 용어의 사용입니다. 제자들 중 마태와 요한만이 우리에게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고대 장르,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고 글을 쓰는 장르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마태와 요한은 글을 쓸 계획이 없었으나 팔레스타인을 떠나면서 필요가 생겼을 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롬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유세비우스 이후 몇 세대, 약 400년경에 그의 저서 '유명한 사람들의 삶(Lives of Illustrious Men)'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명한 사람 중 다섯 번째 사람이므로 이것은 Live

s of Illustrious Men 5에 있습니다. 레위라고도 불리며 세리에서 사도로 변한 마태는 유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레받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히브리어 글자와 말로 기록하였느니라. 나중에 누가 그리스어로 번역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곱 가지 증언에 대한 일종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들에 대해 모순되는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가 자신이 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전승에 대한 만장일치의 의견이며, 아마도 현존하는 사본의 제목에 대해서도 독립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복음서의 제목과 내용과 일치한다. 다른 이름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짜 복음을 알고 배척했습니다.

둘째, 최초로 기록된 마태복음도 전승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과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자주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나 아마도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통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헬라 복음서는 셈어의 헬라어 번역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늘날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번역이란 히브리어 구문과 어휘 범위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어로 전달되는 번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칠십인역」은 책마다 그 내용이 다르지만 본문 대부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이 좀 더 유창한 그리스어 문체를 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 중 일부는 문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마코스(Symmachus)와 테오도티온(Theodotion)은 좋은 그리스어 문체를 사용한 반면, 아퀼라(Aquila)는 그 둘 사이의 중간인 70인역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의 그리스어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영어 예를 생각해 보면 NASB는 영어 번역과 비슷하고, 물론 행간 영어는 훨씬 더 영어 번역과 비슷하지만 NIV 등은 아마도 좋은 영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번역을 했나요? 글썄, 우리는 모른다. 아마도 마태는 나중에 무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번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본 증언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이 번역본이었다면 영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문제 없습니다. 마태가 번역했다면 사도나 신뢰하는 동료가 아닌 누군가가 번역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복음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교회에는 성경과 원어가 없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중세까지 라틴어만 사용했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성경언어를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아마도 대부분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원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습니까? 음, 바르 코크바 자료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가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Bar Kokhba는 우리 유대인 배경에서 AD 132-135년에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표시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약성경 말씀 중 일부가 아람어로 음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국어 구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탈리타 금, 등등.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국어였을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한 빠른 둘러보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저자를 살펴보십시오. 내부 증거는 마태복음처럼 책 제목을 제외하면 마가복음은 본문에서 익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스타일이 피터의 성격에 맞는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원천이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웨스트콧은 베드로의 스타일이 반성적이기보다는 감수성이 있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며, 예수의 감정과 표정과 몸짓, 베드로 자신의 생각을 포함한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3절에도 변형 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므로 이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개요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둘 다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의 탄생이나 선재(先存)보다는 요한의 세례로 시작한다. 마가의 이야기의 관점은 저자로서의 베드로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내러티브의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썄, 우리는 저자가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가 그 또는 그의 그룹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출생 이야기가 요셉이나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었다면 현대적인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해리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즉, 독자는 해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만 덤블도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헤르미온드가 알고 있는 다른 인물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이 해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독자가 그것을 알지 않는 한 무엇을 아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37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을 비교해 보면, 마태는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 소녀의 나이, 그 소녀에게 음식을 주라는 예수의 말씀, 사람들이 방에서

쫓겨나는 것을 포함하여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매튜가 밖에 남아서 나중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얻었고 피터는 들어가서 모든 행동을 보았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자와 관련될 수 있는 외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은 마가복음 14장 51절인데,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시트를 잃어버린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생각을 잃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와 거의 비슷하게 Mark 자신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로서 가장 이해가 됩니다. 나는 Mark 자신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로서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 없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특히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알프레드 히치콕이 항상 영화 어딘가에 자신의 모습을 조금 담아두는 것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게 안에 있거나, 앞쪽 창문을 가로질러 일종의 팬이 있고, 여기 이 사람이 창문을 바라보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예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마크와 저자에 관한 내부 증거입니다. 그것은 피터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며 아마도 이 작은 스케치는 마크 자신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외부 증거, 우리는 Matthew Papias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Papias의 진술을 얻었습니다. Matthew Papias는 AD 130년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장로가 Mark가 해석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나 행하신 일을 그가 기억하는 대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듣지도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말했듯이 베드로는 청중의 필요에 맞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가가 기억한 대로 어떤 것에 대해 쓴 것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가지만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들은 것 중 어느 것도 누락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거짓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서 3권 39장 15절에 인용된 신탁의 주님께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에 관한 파피아스의 가장 완전한 진술입니다.

여기 인쇄된 텍스트에 있는 괄호는 장로 사도 요한 이후의 물음표이며, 괄호 안의 괄호 안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일들과 피터 마크가 기억한 것 등은 명확히 하기 위해 번역가들이 추가한 설명 자료입니다. 진술이거나 내 의견입니다. 파피아스는 자신보다 이전의 정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장로 장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내 추측으로는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파피아스가 사도 요한 밑에서 공부했다고 기록합니다. 장로의 인용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파피아스의 논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바는 주님께서 기억하신 만큼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일들의 순서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 파피아스가 기억했던 장로들의 진술이 아니라 이제 파피아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말했듯이 베드로를 듣고 따랐다는 파피아의 설명을 듣습니다. 나는 그것이 휴식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칭 마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통역사라고 불리며 이는 베드로가 몰랐던 언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가 베드로전서와 2서를 썼을 때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마가는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회고록을 썼기 때문에 문구가 정확하지만 순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의 연대기나 순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가의 원래 메모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료를 연대순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파피아스 자신이 여기에서 말했듯이 여러 기독교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청중의 필요에 적합했습니다. 이 경우 마가의 편집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준 자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언급했지만 마가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가 기억하는 만큼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첫 번째 발생은 우리가 제안한 요한 장로의

직접적인 인용 내에 있습니다. 아마도 파피아스는 여기서 우리가 랍비적 관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사의 진술인 미슈나를 정확히 암기한 다음 그 진술에 대한 설명을 게마라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별표 앞의 인용문은 실제로 이렇게 읽힐 것입니다. 마크는 피터가 정확하게 쓴 통역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썼지만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만큼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이 장로의 진술이 될 것이고 그 뒤의 설명은 파피아스의 설명이 될 것입니다. 마가 2세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간증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은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Justin Martyr입니다. 그는 Papias 이후 10년 또는 20년 후에 쓰고 있으므로 140에서 15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위해 Bar Kokh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Trypho와의 대화(아마 140년)와 그의 첫 번째 사과가 보존되어 있는 두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회고록 중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후, 방금 베드로를 언급한 후 저스틴이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이 베드로의 이름과 세베대보아너게스의 아들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보다 오히려 늦을 수도 있습니다. Boanerges를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 16-17절에 대한 암시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회고록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을 바꾸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Zebedee Boanerges는 자신의 회고록이 그리스도가 아닌 베드로의 저자를 언급한다는 가정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스틴은 결코 회고록을 그리스도의 회고록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항상 사도들의 회고록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마가에 관한 세 번째 증언은 Irenaeus가 서기 180년 Justin Martyr 이후 한 세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술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자인 마가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글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용문에서 모호한 요소는 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exodus)입니다. 엑소도스는 그리스어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흔히 사용됩니다. 육체적 출발과 이생에서의 출발을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 그렇다면 이레네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로마를 떠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했듯이, 이 두 가지 구성은 모두 공통적이므로 원하는 경우 어휘집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간증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앞서 보았던 클레멘트의 인용문과 개요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족보가 있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으로 복음을 전할 때라 마가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를 따르며 그 말씀을 기억함이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방해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요는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서 6권 14장 5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클레멘스 베드로가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이 글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당혹감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형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과 다소 비슷합니다. 그는 장막 같은 것을 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입으로는 빠르지만 생각하는 데는 항상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증언은 터툴리안의 증언입니다. 터툴리안은 로마 제국의 라틴

지역, 북아프리카에 있었고, 서기 200년경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Marcion에 대한 자신의 저서 4장 2권 4장 2장 또는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과 마태가 사도인 누가와 마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어 그것을 새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터툴리안은 여기서 글을 쓰는 순서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나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근접성에 관한 증인들의 힘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요한, 마태와 함께 3년을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누가와 마가와 함께 수년을 보낸 사도들입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기 225년경에 기록된 기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문장에서 계속됩니다.

둘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지시한 대로 쓴 복음서입니다. 즉, 베드로는 카톨릭 서신에서 자기 아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당신과 함께 택함을 받았고 마가는 내 아들이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둘째로, 마가는 가장 자연스럽게 연대순을 언급하지만 아마도 문맥상으로는 정경적 순서만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전 문장에서 교회 정경에 따른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자에 대한 요약 첫째,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전통에 대한 만장일치의 의견입니다. Mark의 저자는 현존하는 원고 제목으로 뒷받침됩니다. 마태나 요한의 저자에 비해 마가의 저자에 대한 논쟁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전한다는 생각에 대해 자유주의 집단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전통은 마태의 경우보다 다소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복음 자체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베드로와의 연관성은 사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의 내부 증거와 1451년과 52년의 작은 삽화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어조와 일치합니다.

셋째, 일부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연대와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와 관련하여 전통이 모순된다고 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썼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마가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레나이우스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탈출이라기보다는 살아서 로마를 떠나는 문자 그대로의 탈출을 언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과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적어도 첫 번째 투옥 이후 로마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모순 주장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상대적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를 제시하지만 클레멘트는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있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으므로 마태, 누가, 그 다음 마가, 요한과 같은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연대를 볼 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누가의 저자임을 고려하게 하고, 다시 내부 및 외부 증거를 고려하게 합니다. 복음 본문의 제목을 제외하면 내부 증거는 익명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프롤로그는 사도행전을 누가와 연결하고, 사도행전의 내부 특징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나 예수 중 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동료였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는 모두 데오빌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프롤로그는 우리가 누가라고 부르는 복음임이 분명한 이전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또한 내부 증거와 관련하여 누가와 사도행전의 어휘는 유사하며 의학 용어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갖춘 잘 교육받은 저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작업은 William Kirk Hobart의 *The Medical Language of St. Luke*입니다. 여기서 이 증거는 정리되어 제시됩니다.

글쎄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저자라는 내부 증거입니다. 외부 증거. 마태와 마가에 비해 누가에 대한 초기 언급이 적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에 대한 파피아스의 논평을 보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피아스의 전체 내용은 없고 단지 흩어져 있는 인용문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출처는 실제로 그 중 두 개가 가장 빠른 것과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분명히 2세기 후반에 쓰여졌으므로 대략 180년 정도라고 말하고 이탈리아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토리안 정경(Muratorian Canon)은 신약성서에 속하는 책들의 목록이므로 정경(Canon)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당시 목록에 사용된 용어였지만 저자가 아닌 1740년 발견자인 무라토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발견된 작품은 원고에 끝 부분과 시작 부분이 누락된 단편이다. 우리는 중간 부분 중 일부가 조상 중 하나에서 누락되었다는 가능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학자가 부주의하고 무지한 서기관이 야만적인 라틴어로 썼다고 묘사하는 8세기의 한 필사본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에 대답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어의 라틴어 번역으로 된 그리스어 원본의 번역입니다.

번역 라틴어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내부 증거에 따르면 이 책은 2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로마나 그 근처에서 기록되었으며 로마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초기 교황 중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자의 삶이 그의 생애와 겹쳐 있음을 시사한다.

내 생각엔 2세기 초의 경건한 교황인 것 같은데, 헤르마스를 저자 생전에 로마의 주교였던 비오의 형제로 언급하고 있다. 정경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는 그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복음서의 세 번째 책은 누가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 승천 후에 의사인 누가가 조사한 후 바울을 여행의 동반자로 데리고 갔을 때 자기 이름으로

기록했으나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므로 그가 조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 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만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올바른 복음이 전망된다. 외경을 포함하여 알려진 다른 복음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동반자에 관한 표시는 사도행전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라토리안 카논입니다.

둘째, 무라토리우스 정경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Irenaeus는 이탈리아 어딘가에서 프랑스에서 글을 썼지만 소아시아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그의 문장으로 다시 뛰어 들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떠난 후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출판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통역자인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역시 바울의 추종자인 누가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책에 기록했고 그 뒤에 요한이 전한 복음을 이레나이우스가 전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일반적인 연대순 순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그는 누가를 세 번째로 두었지만 누가가 세 번째로 기록되었다고는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 베드로와 바울의 떠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등이 있었고, 그 후 누가도 책에 기록했고 그 후에 요한이 마가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마태 뒤에, 요한은 누가 뒤에 왔지만 누가는 누가도 그냥 넣었으므로 연대순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는데 이는 확실히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가 이집트에서 약 208년경에 여기에서 쓴 것이고, 이것은 다시 유세비우스(Eusebius)입니다. 다시 같은 책에서 클레멘트는 복음서의 순서에 관한 초기 장로들의 전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족보가 포함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이 이 기회에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따라서 누가가 마가보다 앞에 나온다는 점에서 클레멘스의

연대순은 이레나이우스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누가에 관한 두 가지 마지막 증언.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는 북아프리카에서 약 215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인용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중 요한과 마태와 두루살라와 사도들인 누가와 마가가 믿음으로 이를 갱신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슷하게 부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겐은 이집트에서 약 225년을 썼습니다.

이런, 미안해요. 그 사람 뒤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내 노트에서 페이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오리겐은 이집트에서 글을 쓰고 있다.

셋째,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복음은 바울이 이방인의 믿는 자들을 위해 만든 복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바울이 칭찬한 복음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고린도후서 8장 18절을 언급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 의심한다. 그는 나의 복음서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작품보다는 그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비우스(Eusebius)는 330년경에 그의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다. 3권 4장 6절과 7절. 누가는 안디옥 사람의 종족에 관하여 말하되 직업상 의사였으니 그는 바울과 매우 많이 함께하였고 나머지 사도들과 비열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는 두 권의 영감받은 책에서 영혼 치료에 대한 예를 얻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또한 그에게 전하여 준 자들은 처음부터 목격한 자요 말씀의 일꾼 된 자니 다 처음부터 따르던 자라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따라다녔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복음에 관해 글을 쓸 때마다 자신의 복음을 언급하곤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 복음에 따라 말했습니다.

내 복음이 아마도 바울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는 신약성서의 구절에서 추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언급 중 상당수는 아마도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우리의 빠른 여행입니다.

저자에 대한 요약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추종자이자 의사인 누가는 전통에 대한 만장일치의 견해로 바울의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마태와 마가의 파피아스만큼 이른 언급은 없습니다. 서기 200년까지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모든 지리적 영역에서 누가가 저자라는 데 동의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그 제목이 그 작품에 오랫동안 사용되었거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바울과 함께 여행한 의사였다는 사실은 세 번째 복음서의 내적 어휘와 사도행전과의 연관성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내부 증거에 따르면 누가가 저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복음은 세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데, 아마도 저자 순서에 관한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는 초기 바인딩 또는 정식 명령일 수 있습니다. 무라토리안 정경에서 이레나이우스와 오리겐은 모두 누가복음을 세 번째로 인용합니다.

누가가 실제로 세 번째로 기록되었고 바울이 죽은 후에 기록되었다면 클레멘트는 오류가 있는 것이며 사도행전 날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의 연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를 살펴보았는데, 돌이켜보면 현재 남아 있는 어떤 원고에도 다른 저자에게 부여된 제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작가일까요? 제 생각에 대답은 아마도 John일 것입니다. 그러나 Mark와 Lu

ke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도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주목받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이 실제로 실제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의 연대를 살펴보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날짜, 마가복음의 날짜, 누가복음의 날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증거와 외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날짜, 내부 증거입니다. 내부 증거는 여기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언급은 복음이 1930년대처럼 부활 직후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곳은 오늘날까지 피발이라 불린다. 유다가 목매달린 사건과 복음서가 기록된 사건 사이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나오는 시체를 훔쳤다는 군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사건과 글쓰기 사이의 상당한 시간 간격을 암시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서기 70년 이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마가복음 이후인 70년 직전에 날짜를 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예수의 예언 이후로 날짜를 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는 아들을 죽인 소작인의 비유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그래서 서기 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맞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께서 미래를 아셨다면 그것은 별로 강력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혼인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종들을 때리기를 거부하므로 왕은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면 70 이후에 그렇게 쓰여진 게 그들의 주장이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 그들의 집, 또는 성전, 즉 그들의 집이 70년 이후에 파괴되었습니다. 감람산 설교인 마태복음 24장은 나중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마가복음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예측의 맥락에 있고 예수께서는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당시의 외부 증거.

글쎄요, 마태복음은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파피루스 P64와 P67은 실제로는 동일한 파피루스이지만 사본을 살펴봄으로써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번호가 다르게 지정되었으며, P77은 서기 200년경의 두 사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200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책이 모두 중세 시대의 승려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몇몇 초기 무신론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기 132년경에 쓰여진 바나바 서신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었지만 마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마태복음이 그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가짜 바나바는 그 인용문을 구약성경으로 잘못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적할 점은 바나바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자에 관한 전통에 따르면 마태의 생애 내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서기 100년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에서 얻은 정보는 요한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고 트라야누스 시대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기 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튜는 아마도 100년 이전, 아마도 훨씬 일찍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튜의 나이에 의해 제한됩니다. 마태는 어느 정도 권위를 지닌 성인이었기 때문에 서기 30년경에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적어도 30세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서기 30년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100세 이후에 살았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전통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1세기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년경 클레멘트를 포함한 다른 사도 교부들의 암시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레나이우스의 전승에 따르면 그 시기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61~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여러 전통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아마도 그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아마도 5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마태복음의 연대는 그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입니다. 매튜의 데이트에 대한 다양한 제안. 이 범위는 누가 오래된 스코필드 참고 성경에 기록했는지 AD 37년부터 펜실베니아 대학의 자유주의자인 나의 선생님 로버트 크래프트가 만난 가장 최근의 서기 125년 까지입니다.

37은 아마도 *To This Day*를 참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125 AD는 역사적 자료에 대해 너무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이단자들까지 이를 받아들이고 사복음서만 사용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날짜에 대한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추측이 있습니다. 즉, 이레나이우스가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 약간 오해하고 있으며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인 40년대 또는 아마도 50년대 초반에

히브리어 복음서를 썼다고 제안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발견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마태는 나중에 더 널리 사용하기 위해 60년대에 그리스어 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Irenaeus는 저자와 언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구성으로 인해 그리스어로 출판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안입니다.

파피아스의 진술은 마태복음이 얼마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이었고 히브리어 형태의 복음서도 수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직 그리스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누가복음이 60년 이전이라는 증거와 함께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전통에 적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날짜. 내부 증거.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데이트 후 예측으로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해서 늦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전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부 증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아버지를 참조하십시오. 현존하는 사본 수와 교부들의 인용문 수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초대 교회의 마태복음보다 훨씬 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Peter가 그 배후의 소스라는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흥미롭습니다. Matthew가 이미 한동안 유포되고 있었다면 아마도 가장 이해가 될 것입니다. Mark에게는 여러 가지 데이트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일치 연대 측정 계획, 즉 갈등 최소화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날짜가 베드로가 죽기 전인 60년대로

설정되는 방식으로 교부들의 증언을 해석합니다. 기억하세요, 클레멘트는 베드로의 생애 동안 복음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이러한 해석에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가 어떤 이유로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가의 연대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때(사도행전에서 서술됨)와 대략 서기 61~63년, 네로의 죽음으로 박해가 끝난 서기 6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증언을 거부하고 이레나이우스의 출애굽기 언급을 해석하여 복음의 연대를 베드로의 죽음 이후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68년 이후, 아마도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마크의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견해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마가복음의 연대를 서기 115년까지로 추정합니다.

셋째,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오래된 전통을 거부하고 마가가 마태와 누가보다 앞설 수 있도록 마가를 50년대로 되돌립니다. 이 보기는 많은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두 문서 이론의 보수적인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관 문제라는 주제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날짜 요약. 분명히 사람들은 논의될 공관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그럴듯해 보이도록 데이터를 기꺼이 무시합니다. 일치 견해가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마태복음보다 앞선다는 두 문서 이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날짜로 우리를 이끈다. 내부 증거.

글쎄, 이것이 내부 증거인지 아닌지 논쟁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사도 행전 1장 1절은 누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어야 합니다. Acts는 이전 계정을 참조하므로 프롤로그가 연결됩니다. 누가는 승천으로 끝납니다.

Acts는 거기에서 시작하여 계속됩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인 테오피루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누가복음 21-20장이 유대 전쟁을 언급한다고 생각하여 누가복음의 연대를 주후 70년 이후로 봅니다.

누가복음 21-20장에 예언된 대로 서기 66년에 그 도시는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로마 장군은 겁을 먹고 퇴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도시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서기 68년에 두 번째로 돌아와 24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전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날짜 예언.

그러한 접근 방식은 신자들에게 보증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가 시사한다면 누가복음은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누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 증거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외부 증거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서기 63-64년경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이 끝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도행전의 날짜가 64년 로마 화재 이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로마 정부 사이의 적대감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로가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자 기독교는 서기 300년 이후까지 불법적인 이단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불법이라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우리에게 바울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으며, 전통에 따르면 네로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늦어도 서기 68년쯤에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받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두가 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의 죽음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택 연금은 그가 죽었을 때 책을 끝내는 이상한 방법입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누가 사도행전의 속편으로 세 번째 책을 쓰려고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내가 쓴 첫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 1장 1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성자는 여러 개 중 첫 번째를 의미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누가가 두 개 중 첫 번째를 의미했다면 프로테론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글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는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둘 중 첫 번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는 누가가 일반적으로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있다고 믿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어는 당시의 다른 그리스 작가들보다 다소 더 훌륭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옳다면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그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불과 2년 후에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의 연대가 사도행전보다 약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은 위의 내부 증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여행을 떠나기 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되었고 파선이 로마로 향했다면 특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누가에게 기회를 주었다 면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로마로 향해하기 전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누가가 기록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난파선에 있었다면 그는 그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누가는 바울이 60년경에 항해할 무렵에 동쪽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을 것이며, 아마도 상당히 늦게까지 서쪽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 60년경의 연대는 마가를 60년대에 기록하지만 누가보다는 앞선다는 전통을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통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마가와 누가가 거의 동시적이며 서로 다른 시기에 제국의 다른 지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서부 지역과 같은 어떤 지역에 먼저 도착했고, 누가는 다른 지역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동쪽.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로마, 서쪽 클레멘스, 이집트, 동쪽에서 기록되었는데, 연대순으로 누가가 마가보다 앞선다. Irenaeus의 증언은 연대순으로 보이지만 누가복음도 말하고 마가 뒤와 요한 앞에

놓은 사람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누가에 대한 명시적인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언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다.

Irenaeus는 여기서 연대순으로 작성할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고, 출처가 이집트와는 다른 순서로 두 복음서를 받기 때문에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AD 63-64년의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 58-60년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공관 복음서의 날짜를 요약하면 여기에 있는 나의 메모에는 작은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태복음에 대해 아마도 40년대 초반부터 50년대 중반, 누가복음은 50년대 후반까지 크고 넓은 범위를 제시합니다. , 60년대 중반 또는 6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를 표시합니다.

글쎄, 내 생각엔 그곳이 멈추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관복음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짜 및 저자.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